

16인의 국사를 배출해 승보(僧寶) 사찰이라네

☛ 순천 송광사

승보는 사람에게도 있다

부부는 이른 아침 송광사 입구에 도착했다. 관광 식당에 불이 켜져 있었다. 부부는 식당에서 만난 사람과 동행이 됐다. 그는 고등학교 교사였다. 절에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문화재도 감상하며 수업자료도 확보하는, 이른바 '일타삼피 여행가' 라고 했다.

이른 아침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편백나무 숲길을 천천히 걸어서 송광사 일주문에 당도했다. 정교하게 쌓아 올린 공포와 빔바랜 단청이 어우러진 일주문은 좌우로 여느 키 높이의 담장을 건너고 있다. 앞쪽에는 세줄 내려쓰기로 현판이 걸려 있고 안쪽에도 가로로 기다란 현판이 걸려 있다.

조계산(曹溪山) 대승선종(大乘禪宗) 송광사(松廣寺).
승보종찰조계종림(僧寶宗刹曹溪叢林).

"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절은 역사이고 문화이며 정신이니, 그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김 선생님은 나름대로 절집기행의 노하우를 터득한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그의 말은 절에 깃든 많은 상징과 의미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는 뜻일 터. 절에 담긴 역사와 문화와 정신을 읽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찾아오므로써 새로운 것을 읽는 재미를 터득하는 것이다.

"통도사는 불보종찰, 해인사는 범보종찰, 송광사는 승보종찰. 이렇게 3보 사찰을 정한 것은 해당하는 절의 역사와 가치를 극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3보 사찰이 있다는 것만 알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절이 그 3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디 절 뿐인가요? 우리 자신도 이미 3보를 갖추고 있는 걸요."

시냇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밤새 내린 비로 계곡물이 불었다. 계류를 바라보고 있으니 몸이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그러나 돌로 만든 홍교와 그 위를 장식한 우화각(羽化閣)은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켜 왔다는 듯 의연했다. 다리의 이름은 능허교(凌虛橋).

"자, 다리를 건너면 국랍입니다. 참 멋진 다리죠?"



대웅보살 불상

홍교 안쪽 중간을 좀 보세요. 용의 머리가 있고 여의주에 묶인 철사에 엮전이 달려 있죠?"

"어머 정말이네요. 저게 뭐죠?"

"능허교를 만들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숙종 때로 전하는데, 주지스님이 다리불사를 계획하고 시주금을 모았습니까. 모아낸 시주금으로 다리불사를 다 마치고 나니 돈이 딱 석 냥 남았습니까. 요즘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다른 일에 쓰겠지만, 그 때 주지스님은 다리불사를 위해 시주한 돈이니 합부로 유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대중들과 의논한 결과 그 돈을 저렇게 철사에 꿰어서 다리에 걸어 둔 겁니다. 훗날 다시 다리를 보수하거나 새로 만들 일이 생기면 그 때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세 사람은 대웅보전과 왼쪽의 승보전, 오른쪽의 지장전, 약사전과 영산전을 차례로 참배했다. 아자(亞字) 형태의 대웅보전은 면적이 108평이다. 108번뇌라는 불교를 상징하는 숫자에 맞춰진 것이다. 송광사의 제8차 중수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불사였다. 법당이 커서 그런지 불단도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의미에서 과거불인 연등불, 현재불인 석가모니불, 미래불인 미륵불이 모셔졌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 4대 보살을 협시로 서 있다. 수미단에 아주 섬세하게 조각된 부처님 일대기 등의 문양이 그림책을 길게 펼쳐 놓은 듯 했다.

"다음은 송광사의 심장 같은 건물을 보여야 하는데..."

김 선생님이 말끝을 흐린 이유는 불일문(佛日門)으로 오르는 계단 위에서 알 수 있었다. 일반인 출입 금지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송광사가 승보종찰인 것은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도량이기 때문이고 그 분들의 영정이 국사전에 모셔져 있거든요. 국사전 자체가 고려 공민왕 때 지어진 건물로 국보 제56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995년 10월 그 안에 모셔진 국사님들의 영정 13점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 뒤부터 국사전은 출입금지 되고 만 겁니다."

"수행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관음전 뒤로 돌아가니 폭은 좁지만 경사가 가파른 계단이 보였다. 계단을 올라가니 도량이 흰내려다 보이는 곳에 부도 한기가 서 있었다.

"와, 특이한 모양이네요. 저놈 스님의 부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송광사를 있게 한 장본인이요 타락한 시대를 타락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수행자의 본분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보조국사의 부도입니다."

부도는 화려하거나 웅장함을 강조하지 않았다. 사각의 기단석 위에 다시 사각의 고임돌을 포개고 달항아리 같은 몸돌을 올렸다. 보조 국사의 역사적 위상과는 달리 몸돌도 그리 크지 않다. 옥개석도 추녀를 바짝 치켜 올렸을 뿐 귀꽃이나 기왓골 등의 장식은 생략했다. 보륜도 여러 층을 두지 않고 연꽃 봉우리 하나로 마감했다. 부도의 주인이 수행자의 본분



조선시대 능허교 불사 후 당시 주지스님은 남은 돈 석냥을 유용할 수 없다며 다리에 매달았다.

통도사, 해인사와 함께 3보 사찰의 하나 아쉽게도 영정 모신 국사전은 볼 수 없어

을 강조하며 겸박하게 살았던 보조지눌이란 절에서 이 부도의 외형은 주인의 삶을 설명하는 중요한 아이콘이었다. 탑 옆의 비석에는 '불일보조국사감로지탑'이란 전서가 선명했다. 탑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56호로 지정돼 있지만, 그 역사적 의의는 국보급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고려는 불교국가였습니다. 태조 왕건이 아주 독실하게 불교를 숭상했고 이후의 왕들도 그랬지요. 태조 왕건의 유언인 '홍요십조(綱要十條)' 제1조에 불법을 신봉하고 불사를 일으킬 것을 강조했지요. 팔관회와 연등회 등의 전국적인 행사도 성행했고 문화사적인 발달의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불교 국가라는 점이 불교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발판이 되기도 했지만 승단과 수행정신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禪)불교는 신라 말 고려 초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탱해 주는 새로운 에너지였다. 당나라로 구법 유학을 가서, 달마 이후 계승돼 온 법맥을 이어 받은 고승들로부터 법을 인가받고 돌아 온 선승들이 아

홉 개의 산에서 차례로 선문을 열면서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 그 새로운 바람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향해 행복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에게도 그러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것으로 나라의 기운이 만대에까지 흥성하게 되길 바라마지 않았다.

"종교가 세속 일에 관여하게 되면 그 본연의 정신을 잃기 쉽죠. 고려시대의 불교는 왕실을 위해 수많은 재(齎)를 지냈고 심지어 적이 쳐들어오지 않기를 비는 재를 지내기도 했어요. 군사력을 기르는 것보다 재를 지내는 것이 국방을 튼튼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가운데 절집에서 전답(田畵)을 소유하게 되고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재물을 갖게 되니까 그걸 지킬 인력이 필요해서 승병(僧兵)이 생긴 겁니다. 물론 승병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군사력으로 활약하기도 했지만, 승려 개인의 타락도 심하여 은처승(隱妻僧)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의 여섯 번째 왕인 성종은 개인 주택을 절로 고치는 것을 금지하고 팔관회와 연등회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무신정권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무신과 문신 그리고 왕족과 승단이 권력쟁탈전의 축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그 시대 승단이 모두 그렇게 타락한 것은 아니었겠죠?"

"물론입니다. 구산선문을 중심으로 하는 선불교가 활발한 수행불교를 구가했고 교학도 발전해 왕자 출신인 대각국사 의천은 속장경을 간행하기도 했지요. 고려시대 전체를 거쳐 철학 문학 회화 조각 건축 등 문화예술과 학문 분야의 발달은 우리 역사에서 문예 부흥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격한 느낌은 들어도 김 선생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할만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행복을 향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흐려지면 수많은 중생을 지옥으로 몰아넣게 된다.

"보조지눌 스님이 타락한 종교집단의 쇠신을 주창하고 갈라진 이념을 통합하려 했듯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러한 스님이 필요하고 그러한 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나팔수씨의 목소리가 다소 가라앉았다. 세 사람은 감로탑에 허리를 깊이 숙여 합장하고 계단을 내려왔다.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불교성지순례 전문 인더스트투어에서 대장경 천년 세계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도권 시민들이 편하게 축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장경 축전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industour
인더스트투어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참가안내

출발일 축전기간 중 매주 수요일, 토요일 총 13회 출발(서울)
9월 : 24(마감), 28(마감)
10월 : 1(마감), 5(마감), 8(마감), 12(마감), 15(마감), 19(마감), 22(출발확정), 26(출발확정), 29
11월 : 2, 5

참가비 성인 55,000원 P/P, 아동 50,000원 P/P

포함내역 왕복버스비+중식(이화장정식)+주행사장입장료+합천영상테마파크+해인사+여행자보험

문의 02)2252-3226, 2252-8226, 722-4028

담당자 이명균차장, 정경미 사원

불교성지순례의 새로운 이정표 **인더스트투어** www.industour.com

인더스트투어는 2010년 인도 문화관광 및 불교성지순례 전문으로 새롭게 출범한 여행사입니다. 저희 인더스트투어는 국내 최고의 인도, 서역 전문 여행사로써 다양하고 알찬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섬세한 일정,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행사, 힐링투어를 비롯한 새로운 획기적인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인도여행의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눈물겨운 여정을 직접 찾아가는 성지순례상품은 그 어떤 순례보다도 편안하고 알찬 순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불교성지순례 문의 02)2252-8226 담당_손태호 이사

관음성지 휴 휴 암

현대불교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부대중일동

매년 음력 9월24일 봉행하는
수륙영가천도재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TEL 033)671-0093~5 FAX 033)671-0525